

# 북한 문화이론의 주요개념에 대한 고찰

이춘길\*

1. 머리말
2. 북한의 문화개념
3. 북한의 민족문화론
4. 북한의 계급문화론
5. 북한의 문화혁명론
6. 맺음말

## 국문요약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 일찍부터 출판, 신문, 방송과 연극, 영화, 음악, 문학 등 모든 문화예술 부문들이 인민대중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정치적 무기이며, 경제건설의 과업에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 선동적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이 문화예술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문화예술이 대중으로 하여금 지배체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화이론의 전체적 구성은 북한 특유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적 문화개념에 의해 그 체계과 내용이 규정된다. 본고에서는 북한 문화이론 체계의 기본 토대로서 북한의 주체적 문화개념과 그 이론적 구현인 민족문화론과 계급문화론 등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북한 문화이론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문화혁명론과 최근의 문화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북한, 문화, 문화이론, 민족문화, 계급문화, 문화혁명)

## 1. 머리말

북한 문화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

---

\* 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북한 문화 및 대중문화의 구체적 양태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은 분단의 논리가 위력을 발휘하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북한문화 관련 주요문헌들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북한 문화의 이론과 그 현황을 민족 문화, 계급문화, 문화혁명 등 주요범주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처럼 단순히 사회적 삶의 토대를 반영하는 상부구조의 일부가 아니다. 문화는 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주체적 힘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그들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즉 토대와 상부구조의 도식으로는 파악되기 힘든 독특한 차원으로서 문화는 토대의 토대라고까지 주장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는 광범위한 대중들이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로서 그 사회의 다양한 힘의 관계에 의해 그 양상이 규정되는 소위 정치적-헤게모니적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란 지배계층이 단순히 강압적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영도를 의미하며 피지배계층이 현재의 권력구조에 자신을 묶어두는 가치나 이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능동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sup>1)</sup>

문화의 위와 같은 효력을 의식하면서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 일찍부터 출판, 신문, 방송과 연극, 영화, 음악, 문학 등 모든 문화예술 부문들은 인민대중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정치적 무기

1) 헤게모니의 이론가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는 단순히 정치적 지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 전체로서, 토대로서 문화, 도덕, 세계관 등에서의 영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조, A.Gramsci, *Marxismus und Kultur*, Hamburg, 1983, 151쪽

이며, 경제건설의 과업에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 있는 선전 선동적 매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즉 북한이 문화예술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문화예술이 대중으로 하여금 지배체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 문화이론의 체계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독특한 문화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자. 북한 문화이론의 전체적 구성은 북한 특유의 주체적 문화개념에 의해 그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 2. 북한의 문화개념

북한에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은 북한 고유의 철학적 세계관이자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시도되고 있다.<sup>2)</sup> 우선 다음과 같이 문화의 세 가지 존재형태를 구분하면서 문화개념의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sup>3)</sup> :

첫째) 문화에는 우선 사람이 창조한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가 속한다.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창조물인 물질적, 정신적 부, 문화적 가치의 증대 과정 이다.

둘째) 문화에는 다음으로 자연적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활동 방식이 포함된다. 문화의 발전과정은 그리하여 바로 세계를 지배하며 개

2) 주체라는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새겨난 주체철학사상은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부문을 규율하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다음을 참조 이 현주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민속원, 2006, 46쪽

3)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국, 1989, 19-21쪽

조하는 인간 활동방식의 발전행정이다.

셋째) 문화에는 또한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포함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 정의내리고 있다.<sup>4)</sup> 이러한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화의 개념적 내용을 이루는 사람의 활동방식을 규정할 뿐 아니라 물질적 부이자 정신적 부인 문화적 부에도 체현되게 된다. 즉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는 사람의 고유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이 객관화되고 대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성은 자주의식으로, 창조성은 창조적 능력으로 인간 활동에 작용한다. 그리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떼어 놓고는 문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문화는 그것들을 또한 포함하게 된다. 문화의 내용을 이루는 자주의식에는 구체적으로 세계관, 도덕적 활동의 규범과 준칙, 미학적인 이상과 평가기준 등이 포함되며 창조적 내용에는 과학지식과 경험, 기능과 숙련, 체력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또한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고유한 문화개념은 주체사상에서 크게 세 가지 존재형태, 즉 객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형태와 사람의 활동방식으로 존재하는 형태 그리고 사람 자체에 자주의식과 창조적

---

4) 주체사상에 따르면 자주성은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사람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속성이다. 자주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측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한편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 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간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의 활동은 자주성에 기초한 자주적 활동이며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은 창조성에 근거한 창조적 활동이다.

능력으로 체현되어 있는 형태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북한에서는 문화의 전반적 구성과 체계에서 가장 주되는 것이며 본질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화개념의 이론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가 이와 같이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고 사람의 활동방식이며 문화적 재부라는 파악으로부터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도출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이론에서 정의되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워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부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하고 향유하게 하는 고유한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특유의 기능에서 문화가 다른 사회적 부문들, 예컨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인 정치부문과 생활수단을 생산하고 분배하며 교환하고 소비하는 사회적 기능인 경제부문과 구별되는 문화부문 고유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화의 본질적 내용과 사회적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건설하는 과정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에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첫째) 문화건설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을 보다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워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즉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의식과 자주적인 활동방식을 가진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데 적극 이바지 한다.

둘째) 문화건설은 또한 인민대중을 보다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워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즉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영역의 발전은 근로인민대중을 창조적 능력과 창조적 활동방식을 가진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데 적극 이바지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이러한 문화사업의 2가지 내용, 2가지 측면은 여기서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의 통일의 원리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즉 자주성을 떠나서 창조성은 충분히 발양할 수 없고 창조성을 떠나서 자주성을 옹계 실현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존재로 만드는 사업을 떠나서는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 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는 사업과 떨어져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 권리를 지켜나갈 수 없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소위 주체적 문화론은 문화건설 사업을 사람들을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을 더욱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문화건설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북한의 문화혁명관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김정일은 1992년 1월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이라는 담화에서 문화혁명을 ‘사람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

주의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식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의 문화건설에 대한 두 번째 규정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이 문화건설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문화건설의 본질을 이루는 사람들을 힘 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 오늘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전개되다 는 사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민족을 문명화하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민족문화가 발전하여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발전된 힘 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문화론은 '문명'을 문화개념과 밀접히 연관된 개념으로서 특히 문화적 진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문화발전의 수준을 표현하며 문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명'은 인류역사의 일정한 시기에 도달된 문화발전의 수준을 표현한다. 인류가 미개와 야만 단계를 거쳐 문명단계에 로 이행하였다고 할 때 그리고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문명을 대신하여 사회주의 문명이 출현한다고 할 때 문명개념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문명'은 또한 일정한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사회적 집단이 이룩한 문화발전의 성과와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장악되고 체득된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주의 문명은 자본주의 문명과 질적으로 구별되며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문명은 이러한 뜻에서 쓰인다고 한다.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은 북한의 문화론에서는 크게 민족의 물질문명을 이룩하는 사업과 민족의 정신문명을 이룩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물질문명이란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물질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수준, 성과이며 정신문명이란 사람들의 정신생활, 정신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수준, 성과이다.

달리 표현하면 물질문명은 물질적 생산의 결과와 방법에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수준, 다시 말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정신문명은 민족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개성이 어떻게 전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자 사회성원들의 상호관계와 사회의 전반적 기풍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로 되는 것이다.

민족의 물질문명을 건설하는 사업의 주요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 1) 자체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2) 발전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것, 3) 민족성원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

민족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사업의 주요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 1) 자체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2) 자체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sup>5)</sup>, 3) 도덕의 진보를 이룩하는 것.

이와 같은 민족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다양한 측면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소속된 사회제도의 성격을 반영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은 물질문명에서 보다 정신문명의 발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왜냐하면 민족의 표징을 이루는 문화적 공통성에서 심리적 공통성이 주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심리적 공통성은 정신문화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

---

5) 민족의 정신문명으로서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민족예술의 성과를 풍부하게 하고 확대하며 민족성원들의 예술적 소양의 수준을 높이는 투쟁으로 인식하면서 ‘예술문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의 예술문명의 수준은 예술적 가치가 민족의 재부로 되어 민족성원들의 창조적 능력을 어느 정도로 높이며 근로대중이 예술 활동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참여하는가 하는 데서 표출된다. 그리하여 예술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문학 예술적 소양을 높여 나가는 사업으로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사회주의적 민족예술문명은, 착취사회에 고유한 문학예술과 근로대중의 분리를 청산하고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향유물로 만들며 예술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재능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 과정을 통해 건설된다고 한다.

고 정신문화의 형태들에서 관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문화가 물질문화에 비하여 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그리하여 제도적-계급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화론에서 문화건설의 본질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사회주의 하에서의 문화건설의 목적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들을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민족을 문명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즉 대중들의 문화적 수요를 원만하게 충족시켜 그들이 문화적 부를 마음껏 누리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인민대중이 보다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되고 민족의 문명한 발전이 이룩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지니게 된다:

첫째) 우선 문화적 재부가 생산되어야 한다. 문화적 재부의 생산, 창조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공정이며 필수적인 측면이다.

둘째) 문화적 부가 사람들에 의하여 향유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문화적 부를 향유, 소비할 때 문화적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게 된다.

문화적 부의 생산과 보급, 소비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의 주요한 측면들로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문화적 수단이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적 부의 생산과 보급이 전사회적 범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는 문화의 주인이 된 근로대중의 고상하고 건전한 취미에 맞게 문화적 부가 적극 향유되고 사람들에 의한 문화적

부의 소비과정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 된다는 것이다. 근로대중이 수동적으로 문화를 향수하는 활동 뿐 아니라 대중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진작하려는 정책 지향성을 북한에서는 군중문화노선이 라고도 한다.<sup>6)</sup>

오직 사회주의문화만이 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준다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문화론은 사회주의문화에 적대되는 자본주의문화의 소위 반인민적 성격과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반동적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문화론은 특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대중문화’를 반동적 부르주아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거세하고 창조정신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속물적인 소비심리와 엽기적인 취미를 주입하는 천박한 문화라고 규정한다.

부르주아 이론가들은 이러한 대중문화가 사회의 문화생활에서의 민중화의 형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소비에서 사회적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말하는 대중문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대중이 창조한 문화도 아니고 단지 반동적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규범과 행동준칙, 가치평가기준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적인 책략과 수법일 뿐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sup>7)</sup>

6) 다음을 참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2003, 89-91쪽

7) 북한학계의 부정일변도의 자본주의적 대중문화관은 최근 대중문화를 매스컬처(mass culture)와 포퓰러컬처(popular culture)로 구분해서 논의하는 우리 학계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을 참조.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2009, 2장 과 강상현 외,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2002, 2장

### 3. 북한의 민족문화론

북한의 민족문화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 고유의 민족개념에 의거하여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이러한 민족은 역사적으로 씨족공동체가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장구한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해 결합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을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는 계급국가의 발생이었다. 국가가 발생함으로써 일정한 영토에서 인민들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가 밀접해지고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단위를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다. 통일적인 영토에서 생활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 보다 새로운 차원의 핏줄과 언어, 문화의 공통성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들로서 북한의 민족이론에서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간주된다. 민족의 혈연적 공통성은 언어와 풍습, 심리적 특질 등 민족문화의 특성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며 뿌리 깊은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민족적 영토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존과 발전을 조건 짓는 터전이며 민족의 언어적 공통성과 문화적 공통성이 이루어지는 기초이다.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서 특히 민족의 자주 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수단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함께 문화를 역사적으로 창조하고 옹호하며 계승 발전시켜 왔

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북한의 소위 주체적 민족개념을 특징짓는 이러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근본속성이다. 그것은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의 성질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가질 때에만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핏줄과 영토,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을 고수하여 나갈 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성 자체가 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공통성을 이룩하고 옹호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족의 근본 속성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관에서 규정되는 민족문화는 일정한 역사적 시대의 민족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과 생활감정을 반영한 문화로서 이상과 같이 민족을 독자적인 민족으로 개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이며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문화는 민족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민족의 역사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민족을 초월한 세계문화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가 민족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은 우선 민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생활상 유대가 맺어지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sup>8)</sup> 즉 한 민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노동생활로부터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에 고유한 공통된 생활상 유대를 맺으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산도구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쓰는 방법, 생활도구를 만들고 쓰는 방법, 가정과 마을을 꾸리고 사는 방법, 서로 예절을 지키며 관혼상제를 하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며 정서생활을 누리는 방법 등 다양한 모든 활동이 매개 민족에게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게 된다.

8) 한순옥, 「문화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1991년, 44쪽.

또한 문화가 민족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지역적 특성을 가지며 이 사람들의 생활감정, 심리, 성격, 품성 등의 공통성으로 하여 그것에 맞는 문화를 요구하며 창조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은 민족을 이루고 살면서 민족심리의 공통성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민족심리에 맞는 문화를 요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구라고 강조된다. 왜냐하면 민족문화건설이 사람들을 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며 민족을 문명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야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울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민족문화는 단일하거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과정에서 상이한 계급적 내용을 담게 된다고 파악된다. 그리하여 각 민족의 민족문화에는 봉건사회의 생활을 반영한 봉건적인 것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을 반영한 부르주아적 요소도 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시기의 인민들의 생활처지와 감정을 담은 것도 있게 된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족문화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요소, 주체적인 문화요소라고 규정된다.

또한 참다운 민족문화는 사회주의 사회에 와서 비로소 형성되고 개화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된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사회이며 여기서 역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은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 여기서 발전되는 민족문화, 즉 사회주의 민족문화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데 복무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족문화는 구체적으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

합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라고 규정된다. 여기서 문화의 민족적 형식이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형식이다. 이것은 오랜 문화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에는 민족의 심리적 특성, 민족적 전통과 관습, 민족적인 취미와 기호가 반영되고 응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형식은 그 나라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고 그 나라 인민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적 형식으로 된다.

또한 이러한 민족적 형식,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오랜 역사적 기간에 걸쳐 문화를 발전시켜온 그 나라 인민의 재능과 슬기가 담겨져 있으며 그 나라 인민의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다. 특히 민족문화유산은 그 나라 인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그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민족적 형식을 주는 풍부한 원천으로 된다.

북한의 문화론에서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발전의 기본원칙은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과 낡고 반동적인 것을 옳게 갈라내어 낡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대에는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이라 하여도 해당 시대의 사회역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노동계급의 요구와 새로운 시대적 미감에 맞게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문화를 발전시킬 때 인민대중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생활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 민족의 독자적인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적 특성에 맞게 풀어나가며, 사회주의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

적 개화를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여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문화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은 문화발전에서 민족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의 관계문제도 올바르게 풀어나가게 한다. 즉 사회주의 문화의 민족적 특성을 적극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세계적 의의를 가지는 문화적 가치도 많이 창조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 과정에서 다른 민족문화의 우수한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9)</sup>

#### 4. 북한의 계급문화론

북한의 문화론에 따르면 각 나라의 문화는 민족적 특성과 더불어 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환경 속에서 일정한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그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 감정, 정서, 심리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오랜 역사적 기간 공동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적 관계와 더불어 사회 계급관계이다. 문화는 바로 사람들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창조되고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계급, 계층의 구성원으로 되며 그들은 자기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를 창조한다. 문화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은 그것이 어느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근로인

9) 여기서 사회주의 문화의 민족적 특성에 대한 강조가 결코 국제적 문화교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폐쇄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함을 덧붙을 있다.

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는 진보적인 문화이며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는 반동적인 문화이다. 여기서 진보적인 문화는 언제나 사람들을 힘 있는 존재로 키우며 문명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데 복무하나, 반동적인 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민족문화의 발전을 좀먹는다고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인 문화는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계급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며 인민대중은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진보적인 문화는 유린당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전진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에 와서야 가장 진보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며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 내에서도 문화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즉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과정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문화론은 독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문화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적인 문화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 문화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온 사회에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며 끊임없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적인 문화는 노동계급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되고 완성되며 그래야만 사람들을 낡고 반동적인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노동계급과 농민의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앨 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북한의 독특한 변혁이론인 3대혁명의 하나로서의 문화혁명의 과업, 즉

문화영역에서 낮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 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상응하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된다.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혁명적인 문화, 즉 노동계급적인 문화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장 높이 체현한 계급이며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으로 해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에 의해서만 건설된다. 노동계급적인 문화는 노동계급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체현된 문화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구현한 문화이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마비시키고 창조성을 쪼먹는 온갖 반동문화에 대립되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혁명적인 문화이다.<sup>10)</sup>

이상과 같이 본성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이며 근로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는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의 내용은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규정된다<sup>11)</sup>:

첫째)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선 노동계급적 선이 확고히 선 문화,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노동계급의 이념과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문화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둘째)

10) 북한의 문화론에 따르면 문화생활은 정치생활, 물질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의 3대 분야를 이룬다. 이러한 문화생활은 그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진보성과 반동성이 판별된다고 한다. 여기서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본성에 맞게 그를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문화생활만이 참다운 문화생활로 된다고 규정된다. 이러한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화생활은 다름 아닌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다음을 참조, 김홍록, 『사회주의 문화생활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 근로자, 1991년 제1호

11)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국, 87-89쪽.

노동계급적인 문화를 건설한다는 것은 또한 노동계급 속에서 혁명적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계급적 선이 뚜렷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반대하는 투쟁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노동계급의 문화는 자본가계급의 반동문화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고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며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데, 부르주아적 반동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계급적 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 것이 자본주의 반동문화와의 투쟁의 중요한 형식으로 된다. 여기서 문화적 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 규정되며 이들은 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사상 문화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 문화적 침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세계문화정세를 파악한다.<sup>12)</sup> 즉 초강대국들 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으나 제국주의적 지배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지배주의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제국주의적 사상적 - 문화적 공세는 지배세력의 지배와 약탈, 침략과 간섭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문화의 침습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공세의 주된 내용의 하나인 소위 ‘평화적 이행’ 전략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12) 박문성,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는 은폐된 침략행위, 『노동신문』, 1990년 11월 1일, 최성국,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부르주아 문화침투책동」, 『노동신문』, 1993년 7월 13일

13) 북한은 특히 오늘날 지배주의 세력들이 부르주아 문화를 지배와 간섭의 수단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비동맹국가들, 발전도상국들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동계급적인 문화건설의 두 번째 내용인 노동계급 속에서 혁명적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한다는 것은 북한의 문화론에 따르면, 노동계급이 문화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그것이 사회의 모든 부문과 나라의 모든 지역에 보급하고 일반화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문화의 노동 계급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즉 노동계급의 문화 창조능력을 증대시키며 노동계급의 문화 창조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리하여 문화의 혁명적 개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선도적 역할을 높여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기본방향이라고 주장된다.

북한의 문화론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문화조직자적 역할 및 문화교양자적 역할과 문화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 문화 창조에서 노동계급이 영도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높이고 사회의 전반적 문화발전 과정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며, 노동계급의 주위에 광범위한 대중을 단합시켜 전군중적 운동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 창조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북한의 문화혁명론

사회주의에서의 계속혁명으로서의 3대혁명에 관한 이론은 주체사상에

---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은 냉전구조가 붕괴된 오늘의 변화된 정세 하에서 그들의 세계전략의 주요목표가 제3세계 나라들로 전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서방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나라의 존망과 자주권이 걸린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 최성국,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부르주아 문화침투책동」, 『노동신문』 1993년 7월 13일

기초한 북한의 독특한 변혁이론이다. 그것은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집필한 철학사전에 따르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된다.<sup>14)</sup>사회와 자연, 낡은 사상의 구속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사람들을 사회의 구속,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바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 것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대혁명은 그러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다른 형태의 혁명투쟁, 즉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과 구별된다고 한다. 이러한 혁명투쟁 역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한 다음에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3대혁명을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할 때에 해결된다.

북한에서의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며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이자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 제기되는 계속혁명의 과업이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라고 하면서 거기에 커다란 가치와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과거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나라들에

14) 다음을 참조,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힘, 1988.

서도 해야 하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sup>15)</sup> 그것은 우선 이 나라들이 사상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주민의 절대 다수는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소유자적 근성과 개인이기주의가 심하며 노동계급보다 반체투쟁정신이 높지 못하였으며 집단주의 사상도 부족하였다. 미신과 같은 낡은 사상은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에게 심하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산업혁명을 하지 못한 식민지 나라에서 원료, 연료를 캐다가 제품을 만들어 다시 식민지 나라에 팔아먹는다. 그리하여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쟁취한 나라에는 공업의 기초가 없으며 공장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들 나라들은 또한 문화적으로도 매우 뒤떨어져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을 무조건 복종시키고 무제한 착취하기 위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 몰아넣는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몽매할수록 더 잘 순종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민족우매화 정책과 민족문화말살 정책을 실시하여 주민의 절대다수를 문맹자로 만들었으며 민족엘리트를 매우 제한적으로 육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는 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3대혁명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시작된다. 첫 시기인 민주주의혁명 시기와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 3대혁명은 주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봉건사상 잔재와 제국주의사상 잔재를 뿌리베고 사람들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

15) 김재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경험』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년, 6-9쪽

로 무장시키는 것, 그들을 문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반 문화지식 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전면에 제기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부터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는 여전히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 차이와 노동조건에서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이 기본적인 혁명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에 따르면 3대혁명 수행에서 고수하여야 할 원칙은 먼저 사상혁명을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확고히 앞세우는 것이며, 더불어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 같이 밀고나가는 것이다. 인간개조에서 기본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이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여 불러일으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상혁명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 정신적 풍모를 훌륭히 갖추게 하는 것이다. 사상혁명에 의하여 온 사회에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확고히 실현되고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가 높아지고 창조적 적극성이 남김없이 발양된다고 주장된다.

한편 기술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실천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게 하며 이론적 지식과 실천을 결합시켜 지식을 공고히 하고 실천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능력을 겸비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을 능력 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전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 있게 다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문화혁명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진 문명한 인간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며 또한 문화혁명에 의해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가 건설되어 근로자들의 문화적 수요가 원만하게 충족된다.<sup>16)</sup>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전 사회를 인테리화 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화한 기초 위에서 그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sup>17)</sup>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또한 낡은 문화의 잔재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다그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sup>18)</sup>

16) 김재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경험』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년 참조

17) “온 사회를 인테리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의 하나입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31-32쪽

18)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조선노동당출판사,

문화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는 또한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등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체육사업과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며 민족어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로 규정된다. 또한 문화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운다는 것은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생산 활동과 모든 생활을 규율 있고 질서 있게 문화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활동방식, 생활방식으로서 문화의 중요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사회주의 문화의 중요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본질적 특성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데 있으며, 이러한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은 가장 철저한 노동계급적 생활양식이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양식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은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며 사람들에게 선진적 사상을 체득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sup>19)</sup>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의 주인이 되어 생활환경을 알뜰하고 검소하게 꾸리며 언제나 문명하고 낙천적이며 정서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8권, 141쪽

19)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낡은 생산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 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조선노동당출판사, 제8권, 348쪽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지속된 착취사회의 온갖 낡은 생활관습과 풍속까지 완전히 개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방식, 활동방식을 창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전 사회적 운동으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본모기를 창조하여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대혁명 자체가 광범위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따라서 3대혁명 수행에서는 대중운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로서 대두된다.

그리하여 70년대 초 북한에서는 3대혁명을 더욱 확고하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3대혁명의 특성에 맞게 그것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이 발기되었다. 더불어 3대혁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시작하였다.<sup>20)</sup>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3대혁명 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주장된다. 특히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테리들로 구성된 3대혁명소

20)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 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 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운동입니다.”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6쪽

조들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요구인 근로대중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한다. 한편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들도 농촌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 습성과 관습을 뿌리빼고 그들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도록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농촌 집들과 마을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 등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고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높은 형태의 대중적 사상개조운동이자 대중적 기술개조운동이며 대중적 문화개조운동으로 규정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문화혁명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철저히 확립되고, 근로자들의 낡은 생활양식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개조되었다고 주장된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 문화이론의 사상적 토대로서 북한의 주체적 문화개념과 그 이론적 구현인 민족문화론과 계급문화론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북한 문화정책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혁명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화혁명이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된다. 문화혁명을 확고하게 밀고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소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증대하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된다.

문화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문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한 기초 위에서 그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노선은 문화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노선으로 규정된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발전은 나아가 인민대중들의 민족자주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고양하여 민족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며, 또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라와 민족의 단결과 통일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정책과 문예정책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그 사상 교양적 기능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 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수 없다.” 21)

21)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년, 17쪽. 음악예술에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관한 다음의 김정일의 진술도 참조하라: “음악예술부문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김정일의 진술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체제수호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문예정책을 포괄하는 북한의 문화정책 전반의 주요한 문화이념적 좌표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sup>22)</sup>

끝으로 최근 북한은 선군혁명노선을 제시하면서 군대를 모든 부문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군대의 역할을 높이고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서도 선군혁명문화, 선군예술 등의 새로운 범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공훈합창단’ 등의 군인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새로운 문화적 지형의 형성과 기존의 문화론적 주요개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조선 사람에게서 조선음악이 제일이라는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고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음악, 조선 사람의 민족적 특성과 풍습, 생활감정과 정서를 담은 조선음악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음악예술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195쪽

22) 80년대 후반의 민족가극 ‘춘향전’과 90년대의 대표적 공연예술작품인 민속무용조곡 ‘계절의 노래’와 ‘평양성사람들’, 전설무용극 ‘봉선화’ 등이 이러한 경향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정점은 2000년대 초에 창작된 대규모 종합예술공연작품인 ‘아리랑’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강상현 외,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2002.
- 권영민 외,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문화발전연구소, 1990.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일성, 『저작선집』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재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경험』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 김정분,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김정일, 『음악예술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요 논문집』 통일원, 1993.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노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73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1996.
-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총람』 1993.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2003.
-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국, 1989.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외, 『문학예술사전』 상 중 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3-1993.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힘, 1988.
- 사회과학출판사 편, 『항일혁명문학예술』 갈무리, 1989.
- 이은죽 외, 『남북한사회통합론』 삶과꿈. 1997.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현주,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민속원, 2006.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49-1990년.
-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년.
- 잡지 『조선영화』 문예출판사.
- 잡지 『조선예술』 문예출판사.

## Abstract

### Betrachtung über die wichtigen Begriffe der nordkoreanischen Kulturtheorien

Lee, Tschunkil

In Nordkorea wurden alle Kultur- und Kunstbereiche wie z.B. Publikation, Zeitung, Sendung, Theaterstück, Film, Musik, Literatur usw. bereits direkt nach der Befreiung Koreas von Japan als politische Waffe, die die Völker sozialisch bildet und die Partei und die Völker verbindet, sowie als starke propagandistische Medien, die die Arbeiterklasse zu den Aufgaben des Wirtschaftsbaus veranlassen, betont und engagiert angewendet. Der Grund dafür, dass Nordkorea große Interesse an allen Kultur- und Kunstbereichen zeigt, liegt darin, dass Nordkorea sehr gut weiß, dass die Völker durch die Kultur und Kunst freiwillig dem Herrschaftssystem zustimmen. Die Form und der Inhalt der gesamte Konstruktion der nordkoreanischen Kulturtheorien werden durch die subjektiven Kulturbegriffe, die auf die nordkoreanische einzigartige hegemoniale Ideologie, d.h. Juche-Ideologie basieren, festgelegt. In diesem Aufsatz wurden als ideologische Grundlage für die nordkoreanischen Kulturtheorien der subjektive Kulturbegriff in Nordkorea und dessen theoretische Realisierung d.h. Theorien der Volkskultur bzw. Klassenkultur betrachtet. Außerdem wurden die Kulturrevolutionstheorie, die als praktische Leitlinien der nordkoreanischen Kulturtheorien angesehen werden, und die heutigen kulturellen Tendenzen dargestellt. (key words : Nordkorea, Kultur, Kulturtheorie, Volkskultur, Klassenkultur, Kulturrevolution)

www.kci.go.kr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